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3년 2월

선교편지 제 160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에 가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결같이 서로 반겨주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지난 수요일에 교회에서 손을 마주 잡고 팔짝 팔짝 뛰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주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는 교인들은 마치 오랜만에 마주하는 것처럼 요란하게 서로를 반갑게 환영해 줍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조직이나 기관이나 관계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교회의 참다운 모습을 보여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5)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 선교지에 교회 외에 별다른 연고지가 없는 선교사인 저희들을 교회처럼 반갑게 환영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은 식당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디고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15년간 학교를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학교를 방문할 때 마다 교회에서 느낄 수 있는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그동안 관계를 맺어 왔던 학교들 마다 선교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마치 형제 '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학원 사역을 제일 먼저 시작했던 '마띠 고등학교'는 얼마나 환경이 열악했던지, 학교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할 교실이 없어서, 전교생이 야외에서 수업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실 8채를 지어 주었고, 도서실을 만들어 주었고, 컴퓨터를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전교생이 300여명에 불과 했는데, 이제는 3,000여명의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익핏 고등학교는 정도가 더 심해서 그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화장실'이 없는 학교였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뒷마당 숲속으로 가거나, 집에 돌아가도 되는 학교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곳에 남,녀 학생들이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남,녀가 화장실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마띠 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도서를 지원하였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익핏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의자가 없는 학교였습니다. 이 곳에도 학생들이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상당수의 의자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학교에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 모양으로 나누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각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감사한 마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롬 14:18)

그런데 이러한 외형적인 선교의 결과도 크지만, 그보다도 '장학 사역'을 통하여 학생들을 제자 훈련을 시킨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감격적인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언제나 초심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장학 사역을 통하여 약 70여명의 학생들에게 대학교 장학금을 지원하며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중에 40여명이 이미 대학을 졸업하여 지금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각 학교의 어엿한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전부였는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열매들이 맺힌 것입니다. 학교 교사가 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어느덧 학교 교사가 저들의 꿈이 되어 서로 밀어주고 당기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교사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렇게 많은 장학 사역의 열매들이 디고스에 있는 각 학교마다 고르게 퍼져 있어서,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분에 넘치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장학사역에 속한 학생들 중에서도 특별히 '진'은 다른 학생들과 구별이 될 정도로 총명하였습니다. 집이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진'의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뿐인 오빠가 불량배들에게 총격을 당하여 사망하고, 아버지는 교통 사고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학비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경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운데



데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로 성실히 섬기며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고스 내에 있는 대학교의 수학 강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적성을 찾아 아팔라야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 학교를 방문할 때면, '진'의 환대 뿐만 아니고, '진'이 가르치는 초등학생들로부터도 열렬하게 환영을 받습니다. 장학 사역의 열매가 정말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아일린'은 가정 형편으로 인하여 다른 또래의 학생들보다 늦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학 사역에도 늦게 합류하였습니다. 이미 아기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얼마나 억척스럽게 노력을 하는지, 불굴의 여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지만, 교회 일이라면, 마치 큰 누나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의 삼십세가 다 되어 디고스에서 가장 큰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일린'이 근무하는 학교는 고등학생 수가 '만 오천명'이고, 교사를 포함한 임직원 수가 '육백명'이나 되는 큰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학교 내에서 길을 잃을 정도인데, 그 큰 학교에서도 자신이 수혜를 받은 것처럼 '장학 사역'을 해주기 바라지만, 도저히 역부족 이어서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 4:3 상)

'주빅' 선생님은 마띠 고등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사역을 시작할 당시, 학생들의 지도 교사로 저희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선생님이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가정 형편과 개인 신상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의 가정 방문도 동행 해 주었습니다. 쉬어야 하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진행하는 제자 훈련에 학생들과 함께 해 주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빅' 선생님도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어, 장학 사역의 일원으로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함께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두 딸을 낳았는데, 한류 열풍이 한창인 것과 맞물려서 한국식 이름을 지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영미'와 '영희' 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딸을 임신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평교사 였던 '주빅' 선생님이 승진을 계속하여, 금년에 디고스 내의 '발라박'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발라박' 고등학교에는 장학사역을 통하여 대학을 졸업하여 선생님이 된 '조이스'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스파마스트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일라이자', 막사이사이 초등학교의 '킴', 프라임 고등학교의 '사라', 마띠 고등학교의 '그레이스' 등 디고스 내의 크고 작은 학교 마다, 그동안 장학 사역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 받은 학생들이 이제는 또 다른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장학 사역에 속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교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 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학교에도 장학 사역을 확대해 달라는 행복한 부탁을 받고 있지만, 계획만 무성할 뿐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라박' 고등학교의 주빅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 있는지 간절히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방법을 찾아 보기로 하고 발길을 돌아 서야만 했습니다.



아팔라야 예일교회 인근에 위치한 아팔라야 고등학교에는 약 45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교실에 아직 전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 합니다. 코로나 전, 그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간 중단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걷히는 가운데, 개학과 함께 다시 채플 시간을 요청하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신임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교장 선생님은 지금까지 마띠 고등학교 선생

님으로 근무하다가, 금년에 교장으로 진급하여 전근을 오신 '홀리오' 선생님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전에 마띠 고등학교에서 '홀리오'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이 분은 기억이 얼마나 생생한 지, 마치 저희 신상을 미리 파악해 놓은 것처럼 장학사역과 단기 선교팀이 행한 의료 선교 등을 자세히 기억하며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장학 사역의 일원으로 선생님이 된 '밀레니어'가 교장 선생님의 처제 임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방문한 목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채플 시간을 요청했는데, 저희 기대에 넘치도록 일주일에 한 시간이 아닌 매주 목요일 거의 '다섯 시간' 동안 각 학급을 돌아 다니며 모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부부는 목요일마다 학교에서 바쁘게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제가 아무리 수고해도 직접 할 수 없는 일들을 장학 사역에 속했던 학생들의 좋은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고 놀라운 방법으로 디고스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고,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장학 사역을 위하여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섭리에 그저 감격하며, 앞으로의 사역에도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 봅니다. 아무쪼록 많은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 1:6)**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